

우크라戰 사고 갈라진 세계 中·인도·남미 다른 목소리

중남미 33國 우크라 침공 규탄 거부 G20 리 곡물협정 탈퇴 규탄 무산 각국 러시아 이해관계따라 대응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국제사회 여론이 다시금 갈라지고 있다. 중남미 30여개국 정상은 유럽연합(EU)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에 동참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러시아의 흑해곡물 협정 일방 탈퇴 움직임에 대해서도 주요 20개국(G20)조차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군사·에너지 분야 강국인 러시아와 관련한 국가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감에 따라 이같은 분열상은 갈수록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현지시간) AFP·dpa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27개국 및 중남미·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 33개국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정상회의 후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쟁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표현이 담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 정상은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평화화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성명 어느 부분에서도 '러시아'라는 단어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마저 니카라과는 최종 문구에 거부감을 표하며 성명 발표 명단에서 빠졌다.

dpa는 "EU는 공동성명에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더 담기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쿠바 등 러시아를 지지하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반대로 전쟁을 규탄하지도, 러시아를 언급하지도 못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니카라과의 경우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맞아 열린 유엔 긴급 특별총회에서 러시아의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될 당시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당시 쿠바는 기권했고, 베네수

엘라는 투표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세 나라는 지난달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주도한 바그너그룹 용병단의 반란 사태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공개 표명하기도 했다. 모두 무기 제공을 비롯, 과거부터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온 곳들이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경제규모가 큰 중남미 정상들 역시 이번 성명 논의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러시아의 침공 사실은 비난하면서도 중대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꺼렸고, 그보다는 식량이나 에너지 가격 등 전쟁의 여파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

dpa는 "많은 중남미·카리브 지도자들은 평화 회담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토 회복 없이 종전협상에 임할 수 없다는 우크라이나의 입장과 대치되는 것이다.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무대도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 사안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공동성명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을 내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 의원의 인도 관리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방 국가는 전쟁을 단호히 규탄하는 것을 추진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했다"고 전했다. 특히 러시아는 이번 전쟁을 "특별군사작전"으로 표현하는 것을 고수했고, 이에 따라 의장국인 인도는 공동성명 초안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채 회의 말미 의장이 요약한 논의를 전달하는 데에 그쳤다.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은 "공통된 언어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이번 행사는 지정학적 문제를 논의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요약본 내용을 전했다.

다만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길을 보장해왔던 흑해곡물협정의 종료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몇몇 회원국들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난했다"며 "흑해 통과는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점명했다. /연합뉴스

펄펄끓는 지구촌...미국도 이탈리아도 분수대 폭염 식히기



18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공원 분수대에서 소녀들이 물놀이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미국 국립기상국(NWS)은 미국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자국민 1억명 이상이 폭염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탈리아 20개 도시에 폭염 경보가 발령된 18일(현지시간) 한 시민이 수도로 마 포폴로 광장의 분수대에 머리를 담그고 있다. 이날 로마의 최고 기온은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섭씨 41.8도로 관측됐다. /연합뉴스

중국·러시아 함대 동해 집결...해·공군 합동훈련 돌입

군함 10여척·군용기 30여척 투입 동해 중부해역서 29일까지 훈련

중국군과 러시아군이 동해 중부 해역에 집결해 해군과 공군 합동훈련에 돌입했다.

19일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에 따르면 '북부·연합-2023' 훈련에 참여하는 중국측 해군 편대는 전날 정오께 예정된 해역에 도착해 러시아 해군과 만났다.

양국에서 파견한 수송기와 전투기 등 각종 군용기도 지정 비행장에 진입했다.

해방군보는 중국과 러시아의 훈련 참가 병력이 집결을 완료했고 연합 지휘본부를 개설하는 등 본격적인 훈련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양국 병력의 집결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중국 국방부는 최근 양국 군이 동해(중국 국방부는 '일본해'로 표기) 중부에서 만나 훈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훈련에 군함 10여척과 군용기 30여척을 투입했다.

중국은 유도 미사일 구축함 치치하얼과 구이양, 유도 미사일 소형 구축함 자오창과 리자오, 4대의 헬기를 탑재한 종합 보급함 타이후를 파견했다.

러시아는 6천800t급 대잠 구축함 아르미달 트리부츠와 아르미달 판텔레예프 2척과 초계함 그레다쉬 등 군함 8척을 보냈다. 이번 훈련은 오는 29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방군보는 이번 훈련의 부지휘관이자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장성인 발레리 카자코프 해군 소장이 지휘본부가 설치된 중국 치치하얼항으로 이동했다고 소개했다.

중국은 이번 훈련이 중·러 양국 군의 전략적 협력 수준을 높이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공조를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

인도 기록적 폭우 타지마할 침수 우려

야무나강 수위 계속해서 높아져 타지마할 외곽 성벽까지 차올라

인도에서 몬순(우기) 폭우가 이어지면서 세계적 인 문화유산 타지마할까지 침수될 위기에 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정부 산하 중앙수자원위원회(CWC)에 따르면 계속되는 폭우로 인도 수도 뉴델리를 비롯해 야그라, 노이다 등 인도 북부의 주요 도시를 관통하는 야무나강의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특히 야무나강은 타지마할 북쪽 성벽을 끼고 흐르는데 이곳의 수위는 18일 오후 152m까지 상승, 위험 수위 152.4m에 거의 도달했다.

이처럼 수위가 올라가면서 이미 강물은 타지마할 외곽 붉은색 사암 성벽 윗부분까지 도달한 상태다.

야무나강이 타지마할 턱 밑까지 올라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강이 이 성벽만 넘어서면 바로 타지마할의 흰색 대리석 벽면에 닿아 벽이 손상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CWC는 야무나강이 넘쳐 타지마할까지 도달한 것은 1978년이 마지막이라며 당시에는 강 수위가 154.76m까지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인도의 유적지 관리 기관인 인도고고학연구소(ASI) 측은 현재 타지마할에 대해 심각한 우려는 없다면서도 "비가 더 많이 오거나 며칠 동안 물이 이 정도로 높게 유지된다면 상황을 다시 평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ASI는 또 타지마할은 아직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타지마할 인근 이티마드 우드 다울라의 무덤 등 다른 유적지들은 수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인도 북동부 아삼주에서는 브라마푸트라강의 강둑이 무너지면서 17개 지역의 450여개 마을을 덮쳤다. 이 사고로 최소 8명이 사망했고 11만5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중 사상 최고 청년실업률 속 '허위 인턴증명서' 매매도 기승

역대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 중인 중국에서 '허위 인턴 경력'을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현지 교수의 지적이 나왔다.

둥쑤징 베이징대 수학교육학 당 위원회 부서기(교수)는 19일 중국청년보에 실은 글에서 "대학 졸업 시기를 맞아 가짜 인턴 증명서 매매를 비롯해 인턴 기록·평가, 기업 조사 등 기록을 작성해주는 부가 서비스가 조용히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둥 부서기는 "문서 위조는 불법이지만 이런 '회색 산업사슬'은 여전히 잘 나간다"며 "가짜 인턴 증명서를 사고파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대학은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해 올바른 길을 가게 해야 한다"고 썼다. 그는 인턴 활동이 취업에 앞둔 학생들에게 전문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일 기회라는 점을 대학이 각인시켜야 하며, 무작위 조사 등 엄격한 관리로 '가짜 인턴'을 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중국의 16~24세 청년 실업률은 21.3%로 중전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연합뉴스

'189개국 무비자' 한국 여권지수 2→3위

1위 싱가포르·독일 등 2위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수와 이를 반영한 여권 순위가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현지시간) 공개된 영국 국제교류 전문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의 올해 3분기 여권 지수에서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국가는 189개국이었다. 한국은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일본, 룩셈부르크, 스웨덴과 함께 여권 지수 공동 3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해 같은 지수에서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192개국, 여권 지수는 공동 2위였던 것보다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수도 줄고 순위도 하락한 것이다.

한국은 이 순위에서 2013년 13위까지 떨어졌다가 2018년부터 2위 또는 3위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번에 1위를 차지한 곳은 싱가포르 여권으로, 비자 없이 총 192개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의 순위는 작년 2위에서 순위가 한 단계 상승했다.

일본 여권은 지난 5년간 1위를 유지해왔지만 이번에 공동 3위로 떨어졌다. 2014년 공동 1위를 차지했던 미국과 영국은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 꼴찌인 103위를 기록한 아프가니스탄 여권으로는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국가는 27개국에 불과했다. 북한의 경우 39개국으로 97위를 기록했고, 시리아(30개국·101위), 이라크(29개국·102위) 등도 최하위권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